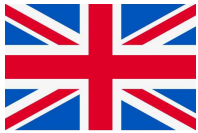


1 영국(United Kingdom,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영국은 하나님의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불리리라!”(사1:26)



영국은 1707년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와 연합하면서, 브리튼섬 서부 웨일즈와 함께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이 성립됩니다. 이후 1800년 아일랜드 왕국이 영국에 병합되어 정식명칭이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이 되었으나 이후 1922년 아일랜드의 남부지역이 독립하면서 정식명칭은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으로 변경됩니다. 줄여서 유나이티드킹덤(United Kingdom) 또는 UK라고 부릅니다.

영국은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 엄청난 경제적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때에 세계최강의 해군력을 바탕으로 북미, 아프리카, 인도, 호주 등 세계 1/4의 식민지를 개척하여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며 대영제국의 위상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후유증,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 국가경영 부실, 노동자 계층 불안 등으로 경제와 함께 사회 전반이 쇠퇴하면서, 여전히 강대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유럽 국가들 중의 하나로 전환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가 국민투표로 가결되면서 올해초 영국은 유럽연합을 떠났습니다. 올해 말까지 영국은 유럽연합과 탈퇴 이후의 까다로운 협상들을 남겨놓고 있고, 국내 여론도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 정치와 경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기독교 가치관을 밀어내고, 인권을 포장한 방종, 성 정체성을 이용한 정치 등으로 가족의 해체와 도덕의 붕괴를 가져왔고 이는 곧바로 폭력, 술, 마약, 성적타락, 도박, 중독 등의 전방위적인 죄의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사회적 부패에 대해 영국 언론들은 ‘고장난 영국’(Broken Britain)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고, 국민들은 이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에 냉소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은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코로나는 급속히 확산되었고, 두려움과 위기의식이 전 영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국에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는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세계기도정보의 저자 제이슨 맨드릭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주간 교회 출석률이 10%를 훨씬 밑도는 영국에서 코로나로 인해 봉쇄조치가 시작된 이후 25%의 성인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했다.” 또한 “한 번도 기도를 해 본 적이 없는 성인 20명 중 1명이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영국에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영국 코로나19 팬데믹 주요 일지

- 2월 7일 영국내 자국민 최초 확진자 발생
싱가포르 컨퍼런스 참석
- 2월 24일 영국 보건전문가 “코로나19 통제 불가능한 변곡점 가까워져”
헌터 교수 “확산 추이를 볼 때 코로나 통제할 시간 얼마 안 남아” 경고
- 3월 6일 첫 사망자 발생 확진자 150명
- 3월 8일 코로나19에 대형마트 사재기 넘쳐 판매 제한
- 3월 14일 확진자 1천명 사망자 28명
코로나19 환자 급증, 공공의료대란 위기에 시설확충 박차
- 3월 17일 연구진 “26만명 죽는다” 가설에 영국 코로나 대응전략 180도 급변
- 3월 19일 확진자 3천명 육박 사망자 150명 넘어
영국 정부, 그동안 “적절한 때 아니다”며 미루다 결국 휴교 결정
- 3월 23일 확진자 5천명 사망자 300명
코로나19 우려에 ‘사재기’ 지속, 유통업체 구매 가능 개수 제한
- 3월 25일 왕위 계승 서열 1위, 찰스 왕세자 확진 판정
- 3월 27일 영국 총리, 보건부장관 연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
- 3월 30일 확진자 2만명 사망자 2천명
총리, “상황 더 나빠질 것”
- 4월 3일 정부, 독감 유행에만 초점...팬데믹 전략의 구조적 실패 인정
- 4월 7일 확진자 5만명 사망자 8천명
- 4월 10일 신규 확진자 7천800명 최대, 확진자 6만명 사망자 1만명
- 4월 16일 확진자 9만명 사망자 1만5천명
700년 역사 영국 의회, ‘가상의회’ 도입키로
- 4월 17일 봉쇄조치 3주 연장
- 4월 21일 외국인 혐오 커져... 한인유학생도 폭행당해
확진자 12만명 사망자 2만명 세계 5위
- 4월 30일 확진자 15만5천명 사망자 2만6천명 세계 3위
- 5월 4일 급식차질로 결식아동 두배로 급증...50만명 넘어
- 5월 6일 사망자 3만명 넘어... 사망자 세계 2위
- 5월 20일 영국 초교 1천500곳, ‘휴교 해제령’ 거부
- 6월 6일 확진자 25만6천명 사망자 4만명
- 6월 19일 신규 확진자 1천명 대
코로나19 감소세 지속에 경보체제 4→3단계로 완화
- 7월 2일 확진자 28만4천명 사망자 4만4천명
코로나19발 해고 본격화
- 7월 9일 코로나19 대응에 285조원 사용...연간 보건복지 예산액보다 많아
- 7월 16일 2분기에만 65만명 일자리 잃어
- 7월 18일 확진자 29만3천명 사망자 4만5천명

말씀기도

A 먼저 본문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27〉

- 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 19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 20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 21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로다
- 22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 23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 24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 25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 26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 27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묵상하며 깨닫게 된 것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B 이제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1. 영국은 지난 수백년 동안 꾸준히 영적 각성과 부흥의 시기를 경험해 왔다. 19세기만 해도,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 아일랜드와 각 지방에서도 수차례 부흥이 이어졌다. 한 교회역사가는 당시 부흥의 영향력에 대해 "술주정꾼의 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많은 술집이 파산하고, 범죄가 줄어들어 경찰들이 실직했다."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지금 영국 기독교의 쇠퇴는 다른 유럽 지역보다 더 심각하다. .

말씀을 의지하여 다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 1) 영국 성공회를 위해. 영국 성공회는 영국 기독교의 주류 세력이며, 전 세계 성공회 신자는 약 8천만명이나 된다. 그러나 영국 성공회는 동성결혼 허용, 동성애자 주교 임명 등의

‘친동성애’ 행보를 일삼는 미국 성공회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성공회와 아프리카 나라들을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 성공회 사이에서 분명한 성경적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영국 국내적으로는 성도가 없어 교회가 결혼식, 세례식, 장례식 등의 이벤트로 겨우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시골 지역은 교회 건물이 인터넷망 설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위안 삼아야 할만큼 참담한 상황이다. 지난 2019년에는 4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전교회 주일예배 의무’를 폐지했다. 뿐만 아니라, 유서 깊은 교회들이 관광지, 도서관, 모스크 혹은 나이트클럽으로 팔려나가고 있다. 전 성공회 수장이었던 조지 캐리는 “다음 세대에는 영국 국교회가 소멸할 것”이라는 암담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영국 성공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영국 성공회를 청결하고 정결하게 본래와 같이 회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자.

- 2) 코로나19의 위기가 영국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있다. 영국인 5만 명 이상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기도의 날’을 요청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영국의 알파 코스 설립자는 “나는 내 인생에서 지금보다 사람들이 복음에 더 개방적인 때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설문조사는 코로나 봉쇄기간 중에 많은 영국인들이 기독교 신앙과 기도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런 긍정적인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에 감사하자. 그러나 영국이 위기를 모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주홍 같이 물든’ 죄의 위기’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축복을 다시 회복하도록 기도하자.

2. 말씀을 의지하여 다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 1) 이민은 영국 사회에서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탈식민지화, 고령화,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해 부족해진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영국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이민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불법 체류자, 기존 공동체와의 불협화음, 각종 범죄와 테러, 인종차별 등의 사회문제를 낳았으며, 이는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더욱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영국은 이민, 난민 문제에 보수적인 입장이며, 영국이 회원국 간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EU를 탈퇴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민 문제에 대한 주도권 때문이다. 이미 브렉시트가 완료되면 영국 국경이 강화될 것을 우려해 더 많은 난민들이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해도 잇따르고 있다. 영국정부가 불의를 멀리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나그네와 이민자들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정책을 세우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영국 사회가 이민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기도하자.
- 2) 영국의 다음세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학생들과 청년들이 정신 질환이 위험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문란한 성문화로 10대 임신과 미혼모 문제가 심각하다. 매독, 임질 등

성병환자들이 젊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8만 명의 아동들이 성 학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성 정체성 혼란으로 2009년에서 2018년의 10년간 성전환 아동들이 97명에서 2,510명으로 폭증했다. 학교에서는 교사 중 24%가 학생들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수백명의 아이들이 매년 범죄집단의 뒷에 걸려 마약운반, 절도, 성매매 등에 동원되고 있다. 영국의 주일학교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자. 또한 부모들이 먼저 회개하고 변화되어 영국이 의의 성읍과 신실한 고을로 회복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자.

열방을 품는 기도

“여호와가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리라”

코로나19가 불러온 고독사...런던서만 수십 명 발견돼
최장 2주 뒤 발견...시신 부패한 경우도 많아



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독사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혼자 사는 노령층이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중 코로나19에 걸려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가 수일이 지난 후에나 발견되는 이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코로나19 사망자가 4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유럽에서는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나라다. 일간 가디언은 8일(현지시간) ‘외로움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제하 기사에서 코로나19 확산 후의 고독사 문제를 조명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지난 3월 이후 런던에서만 700명이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자택에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진은 이들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확진자거나, 기존의 기저질환에 더해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자택에서 고독사를 맞이한 이들이 런던에서만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코로나19에 걸린 채 홀로 죽음을 맞았고, 연락이 끊긴 지 수 일 후에야 가족이나 친척, 친구에 의해 발견됐다.

왕립병리학자학교의 사망원인조사위원회장을 맡고 있는 마이크 오즈번 박사는 “어떤 이들은 죽은 뒤 7일에서 최대 14일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시신이 부패한 사례도 많았다고 전했다.

병원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한 많은 노령층은 증상이 있더라도 병원을 찾지 않았고, 이것이 고독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지난 3월 23일부터 이동제한을 포함한 봉쇄조치가 도입되면서 다른 집에 사는 가족이나 친구 방문이 금지된 점 역시 영향을 미쳤다.

비단 노령층뿐만 아니라 조현병, 우울증, 심한 학습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지닌 이들, 술과 마약 문제가 있는 이들도 고독사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틴 마셜 교수는 “코로나19는 외로움의 팬데믹까지 불러오고 있다”면서 “슬프게도 그물망을 뚫고 떨어질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출처: 연합뉴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와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이사야51:3)

기도 |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고독사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영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혼자 사는 노령층을 넘어 정신건강과 술과 마약으로 참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참 존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독한 외로움으로 황폐하였던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교회들이 외로움의 사각지대에서 힘든 싸움을 하는 지체들을 찾아가 위로하게 하소서. 고독사로 죽어가는 광야와 같은 심령들을 복음으로 회복하시고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실 미쁘신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기도24365 긴급기도정보 2020-06-12〉

“주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느니라”

영국 기독교인들…소수민족처럼 탄압받아

친동성애 진영의 압박, 美 그레함 목사 영국투어일정 취소 통보 받아



미국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의 영국 투어를 둘러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입장표명 거부(노플랫폼링.no-platforming)’ 추세와 관련, 영국이 기독교인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소수민족을 대하는 듯 하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영국의 이런 태도는 중국이 위구르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복음주의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노-플랫폼링은 위험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

영국복음연맹의 피터 리나스 이사는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 국가에서 소수 민족이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영국이 기독교인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중국이 위구르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것과 비슷하다”면서 “노플랫폼링의 증가 추세는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제이콥 리스-모그 보수당 원내대표는 최근 의회에서 “미국의 복음주의자 목회자가 받고 있는 대접은 특히나 동의할 수 없는 현대 풍조”라며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매우 편협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복음주의자 그레함 목사는 오는 5월 영국을 방문해 8개의 도시를 투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친동성애 운동가들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일정을 취소했다.

그레함 목사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그는 계획대로 투어가 진행될 예정이며 대안적인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대응도 시사했다. 그레함 목사는 “반대의 수위가 매우 높아서 놀랐지만 이는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그레함 목사의 영국 방문을 지지하는 청원에는 약 1만 2000명이 서명했다. 최근 수천 명의 영국 기독교인들도 그레함 목사의 일정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빌리그레함복음주의협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구주라는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의 메시지를 듣기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출처: 복음기도신문,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

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호세아 6:1,3)

기도 | 하나님, 근대선교의 중심이었던 영국이 이제는 기독교인을 소수민족과 같이 탄압하는 상황을 보며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며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복음 듣기를 거부하는 영국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들이 새벽 빛과 같이 어김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복음 앞에 세워주소서. 주님, 그래함 목사님의 투어 일정취소가 오히려 영국교회를 깨우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국 전역에 들려질 수 있도록 집회 장소가 속히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래함 목사님을 통로 삼으사 영국의 목마른 자들을 모으시고 진정한 회개와 부흥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기도24365 긴급기도정보 2020-02-26〉